

Photo & Imaging 2017 서울국제사진영상전 개최

글
이정환 tbs 기술국



올해로 26회를 맞이한 서울국제사진영상전이 2017년 4월 20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최됐다. 총 100개 기업 300여 개 브랜드가 참여했고 카메라, 렌즈, 영상기기, 프린터, 가방, 앨범, 액자 등 주변기기와 디지털 이미징 기술 제품이 전시되었으며 캐논, 소니, 핫셀블라드, 탐론, 토키나, 자이스 등의 브랜드가 참여하였다. 하지만 니콘, 시그마, 파나소닉, 올림푸스 등 다수의 카메라 제조사가 불참하여 아쉽게도 전시회 규모가 대폭 축소되었고 최신 사진 및 영상 문화와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한 사진, 영상인들

에게 아쉬움을 남겼다. 이번 행사에서는 'Seoul Photo' 예술사진 전시회, '내셔널 지오그래픽(한국판) NGC 사진전', 프로사진가를 위한 'P&I 프로 세미나', '캐논 아카데미 One Point Lesson' 등 부대행사가 함께 열렸다.

Canon

캐논은 이번 전시회에서 2017년 상반기 신제품인 프리미엄 미러리스 카메라 EOS M6와 DSLR 카메라 EOS 800D, EOS 77D를 포함해 DSLR, 미러리스, 하이엔드 카메라, EF 렌즈 등 캐논의 전제품군을 전시하였다.

M6는 약 343g의 소형 바디에 고성능 라인업에 적용되었던 최신 기술인 듀얼 픽셀 CMOS AF를 탑재하였으며, 약 2,420만화소의



APS-C 타입 이미지 센서와 최신 영상처리엔진 DIGIC 7을 탑재해 이미지 처리 속도와 감도 면에서도 성능을 향상시켰다. 준중급 DSLR 카메라로 분류된 EOS 77D는 약 2,420만 화소의 고화질 CMOS 센서 및 최신 영상처리엔진 DIGIC 7을 탑재했으며 올코스 45포인트 AF 시스템과 듀얼 픽셀 CMOS AF를 탑재해 강화된 AF 성능을 구현했으며 중급기 이상 모델에만 채용되는 상단 액정 패널과 퀵 컨트롤 다이얼, AF-ON 버튼을 탑재하여 조작 편의성을 향상시켰다. 또한, 캐논 EOS 시스템 30주년을 맞이해 캐논 행사부스 한쪽을 지금까지 발표된 EOS 카메라와 렌즈를 연도별로 전시하고 EOS 시스템 30주년 특별관으로 꾸며 EOS 시리즈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.

이번 전시회에서도 사용자들이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전시부스를 구성하였으며 카메라와 렌즈를 체험할 수 있는 계단식 체험존과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직접 촬영해볼 수 있는 역동적이고 화려한 분위기의 무대를 마련해 캐논의 듀얼 픽셀 CMOS AF

- 1 EOS M6 2 EOS 77D
- 3 카메라, 렌즈 체험존
- 4 렌즈 분해 및 부품 전시
- 5 지금까지의 EOS 시리즈 카메라와 렌즈를 한눈에 볼 수 있었던 'EOS 30주년 특별관'



기술이 탑재된 카메라들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다. 조명과 세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니스튜디오에서는 카메라와 동조기를 이용해 스튜디오 촬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. 사전에 모집과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을 대상으로 풍경, 야경, 스냅, 여행 촬영의 노하우를 강의하는 '캐논 아카데미 One Point Lesson'도 P&I의 부대 행사로 행사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.

Sony

소니는 P&I 2017에서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7 시리즈와 하이엔드 카메라 RX시리즈, 광학식 손떨림 보정 기술이 적용된 4K 액션캠과 캠코더 등을 전시했다. 소니는 또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20일 새벽, 뉴욕과 런던에서 첫 공개된 프로페셔널 풀프레임 카메라 a9을 P&I 2017 캐논 부스에 전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. a9은 35mm 풀프레임 2,420만 화소 메모리 내장 적층형 이면조



6 알파 마운트의 다양한 렌즈와 액세서리가 전시된 렌즈존
7·8 동영상 촬영을 위한 액세서리



- 9 메인촬영존(무대)
- 10 글로벌 공개와 동시
에 전시된 a9
- 11 RXW-FS7M2K
- 12 오픈 세미나존
- 13 P&I 세미나장
- 14 삼양의 렌즈들



사 방식 Exmor RS CMOS 센서를 탑재하였고 AF/AE 추적 상태에서 블랙아웃 없이 초당 20연사로 최대 JPEG 362장, RAW 241장을 촬영할 수 있으며, 1/32,000 셔터스피드와 무소음 무진동 촬영이 가능하고 693개의 상면위상차 AF 포인트를 통해 약 93%에 이르는 넓은 AF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.

소니 부스에는 렌즈교환식 카메라 알파의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를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. 알파 마운트의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를 체험할 수 있는 메인 촬영존, 망원렌즈와 초망원 하이엔드 카메라 RX10 III의 성능을 체험할 수 있는 망원촬영존, 실제 모델을 촬영하며 프로페셔널 환경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튜디오존 등을 통해 제품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. 오픈 세미나존에서는 P&I 2017 소니 세미나를 통해 정글의 법칙 박윤철 감독 등 유명 작가진이 강사로 참여 RX 시리즈를 활용한 수중촬영, 공간감이 가는 공간사진, 프로페셔널 에디토리얼 포토그래피 등 다양한 주제로 RX, a7, a6500, a99 등을 활용한 촬영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. 📷

